



environment NEWS

국내소식

유넵보고서,

한국의 녹색성장 높이 평가

지난 4월 22일, 아킴 슈타이너(Mr.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평가한 '한국 녹색성장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 UNEP은 지난해 3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녹색경제 인프라 부분에 투자를 권고하는 정책보고서인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GGND)를 발간하였고,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녹색경제를 위한 각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한 정책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했는데, 그 첫 대상이 바로 한국의 녹색성장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뉴딜사업, 녹색성장전략 등을 "국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아시아 국가들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고무적으로 평가하였고, 한국의 물관리 정책을 위해 시도하는 4대강 사업은 생태복원은 물론 물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관련 UN 기구 및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66% 석면함유 자재 사용, 실내공기는 안전



환경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반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건축물 석면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737개소에 대하여 석면함유 자재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88개소(66%)에서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확인한 결과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한 곳은 없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석면 지도를 해당시설에 제공하여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요령, 개·보수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석면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START!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에 대한 인증으로 분류되는데, 인증을 받게 되면 녹색금융상품의 세제혜택(우선 자금지원 등), R&D와 수출,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녹색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신청접수와 발급을 전담하며, 약 9개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평가기관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녹색기술, 사업분야별 소관부처 장관의 명의로 인증이 발급되게 된다. 이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Best Performance"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첫 녹색기술 인증 획득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5월말까지 최종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기질 좋은 날 늘었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3년간('07~'09년)의 수도권지역 대기질 변화를 종합 분석한 결과 대기환경 기준농도 이하인 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미세

환경뉴스

01

먼지 연평균 환경기준농도 이하인 날이 2007년보다 2009년에는 41일 증가하였으며, 이산화질소가 연평균 환경기준농도 이하인 날도 2007년 대비 2009년 29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대기질이 여름과 가을철에 좋아졌다가 겨울과 봄철에 악화되는 패턴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수량, 황사 등의 기상인자로 인한 영향으로 파악되었다. 연평균 대기질의 경우는 미세먼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크게 줄고 있으나, 이산화질소는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4년까지 서울시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황사,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및 기상인자 등의 영향과 상관관계를 고려한 관련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기상청과 업무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DM 검인증 대행,

시장 큰 중국에서 직접 뚫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국내 CDM 운영기구(DOE) 최초로 중국 현지에서 지사를 설립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CDM: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DOE: CDM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UN을 대신하여 CDM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검증하는 기관

중국은 전 세계 CDM사업의 33.9% (1,961건, 아시아 51%), 저감권(CERs)

총량의 50.5%(1억 6천만톤)를 차지하는 최대 CDM 시장으로 미래 잠재력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추진 중인 CDM사업은 72건으로 DOE(공단을 포함하여 9개 기관)당 약 8개꼴로 극히 협소한 편이어서 해외 시장 다각화는 당연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DOE 지사 활동이 개시되면 타당성 조사 및 검인증 대행 수수료로 연간 20만유로 이상의 외화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력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의 주도국으로 면모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DOE 지사의 위치는 상해, 항저우 중에 현지 여건 조사 후 지사 설립에 가장 적격한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중국의 인벤토리 검인증 등 중국 신규시장 개척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등산의 즐거움,

제대로 알고 하면 두 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산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인 국립공원 등산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2007년에

1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객이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국립공원 탐방객이 3,8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인구만 해도 연간 2,500만 명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등산을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등산객의 안전과 잘못된 등산문화로 인한 자연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등산교육은 별로 없는 실정이었다. 국립공원 등산교실의 매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국립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강사 20명 대부분이 에베레스트나 킬로만자로 등 해외 원정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다. 참가신청은 인터넷(ecotour.knps.or.kr/Msec)에서 하면 된다.

“2012년부터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최대 20배 강화”

환경부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한 폐수 배출시설 적용 기준 조정 및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4월 개정·공포했다. 이번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는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20배(4 → 0.2mg/L), COD(40 → 20mg/L)는 2배로 강화되며, 하천의 이용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대상 지역을 4개지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하며, 총인은 '12년부터, COD는 '13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또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일체형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 공정의 경우, 재이용량이 아닌 해당 시설의 저장시설 용량을 1일 최대 폐수량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폐수 배출시설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간을 당초 즉사에서 15일로, 변경신고기간은 당초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였다. 환경부는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이 모두 강화됨에 따라 총인 및 COD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생물자원 기증 절차 마련
환경부(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는 지난 4월 21일「생물자원의 기증·기탁, 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공포 하였다. 실질적으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국립생태원 야외공간 조성사업 중 이식공정이 시작(2010. 9월 이후)되고 동물사육시설 등이 완공(2012.

5월)이후 부터 가능하다.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 연구, 살아있는 생물종 보전·증식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일원의 998천㎡(약 30만평) 부지에 3,651억원을 투자하여 2012. 11월 준공목표로 2010년 2월부터 공사를 추진 중이다.

생태원은 총 505종(포유류 12종, 조류 66종, 파충류 56종, 양서류 36종, 어류 324종) 식물 총 5,237종(열대, 아열대, 지중해, 온대관, 극지관 등 4,838종, 야외공간 399종)을 확보하여 전시하거나 생태계 관련 연구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대형유통매장 녹색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2011년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에 앞서, 녹색매장 시범 운영매장을 선정하고 11월 말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중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시범 매장은 롯데마트(춘천점, 평택점), 롯데백화점(영등포점, 일산점, 울산점), 이마트(산본점, 고잔점, 연수점), 홈플러스(부천여월점, 영등포점, 목동점) 4개 업체의 11개 매장이다. 이들 시범대상 매장들은 늦어도 6~7월까지 LED 조명·태양광 발전

시설·공조기용 인버터 등 환경친화 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적인 매장 운영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시범 사업에서 도출된 개선효과를 바탕으로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수백만명의 소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대형유통매장의 녹색화로 매장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대국민 녹색생활 의식 확산 및 친환경상품 구입편리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 세계최대규모의 매립가스 자원화로 기후변화대응 신호탄 울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의 첫번째 탄소배출권 394,672 CO₂톤이 UN으로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CDM 사업 기간인 10년(2007. 4. 30 ~ 2017. 4. 29) 동안 총 700만 CO₂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DM사업 등록일인 2007년 4월 30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7개월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정을 검·인증받은 것으로 CDM사업 등록 후 3년 만에 맺은 결실로 1차분 탄소배출권은 394,672 CO₂톤은 승용차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입니다.

이 양은 탄소배출권 거래할 경우 약

환경뉴스

02

71억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50MW 발전 시설의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 장신구, 예쁘지만 위험하다

환경부는 작년 한해 어린이 사용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어린이 세정, 화장품류, 문구학용품류, 장신구류 등을 대상으로 피부접촉을 통한 노출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금속장신구 20개 제품 중 5개 제품(25%)에서 니켈(4), 카드뮴(2) 노출량이 각각 일일허용 수준을 초과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방구 및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사제품이 제조사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조사된 제품에 대해 관련 기관(지정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

품공법(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미준수 또는 미표시 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환경과 건강(케미스토리)' 포털 사이트(<http://www.chemistory.go.kr/>)를 통한 불법유통, 금속장신구의 위해성 정보를 지속적인 제공을 통하여 구매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4회 대한민국 10만가지 보물이야기 사진 공모전 개최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자연다큐멘터리 전문가인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함께 「제4회 대한민국 10만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동 사진공모전은 생물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물자원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표적인 환경사진 공모전이다.

이번 사진공모전의 주제는 '한국의 고유생물종'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 식물 등 한국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모두 응모 가능하며, 또한 고유생물종 및 응모분야에 따라 차등 가산점이 적용된다. 작품 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작 제출은 내셔널지오그래픽 홈페이지(www.nationalgeographic.co.kr)에서 회원가입 후 할 수 있다. 심사는 사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진의 작품성 이외에도 촬영과정에서의 생물자원보전 기본 취지 부합여부 정도에 따라 수상작이 결정된다. 수상작 발표는 7월 30일이고, 총 28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5일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를 기념하여 전시되며, 내셔널지오그래픽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진 공모전이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생물자원보전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공모전관련 문의는 환경보전협회(02-3407-1508)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 생물자원 주권을 수호할 청소년 리더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2010년도 「제5기 생물자원보전 청소년 홍보 리더」 100팀(500명)을 선발해 운영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생물자원보전 청소년 리더」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생물자원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부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선발 기준은 생물자원보전에 대한 창의적인 홍보 아이디어 제안서와, 참여 동기를 설명하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선발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5월 11일 환경보전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청소년 리더로 최종 선발된 500명의 중·고등학생들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위촉식 및 현장체험 캠프에 참가하게 된다.

6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블로그 개설과 각종 자료조사 등 향후 홍보활동을 준비하는 예비활동을 진행하고, 이후 7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2개월 동안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팀별 주제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청소년들의 생물자원보전 홍보활동을 평가하여 대상 2팀, 우수상 6팀, 장려상 15팀 등 총 23팀을 선정해 환경부장관상 및 환경보전 협회장상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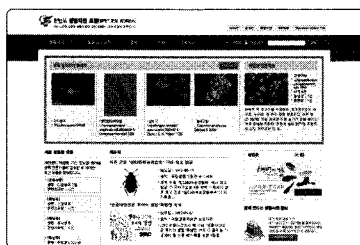
2009년 제4기에는 환경콘서트 개최, 장애우와 함께하는 홍보활동, 만화 게임 등을 제작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친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푸른발자국' 등 24개팀, 166명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봉사활동 인정, 위촉장 수여, 활동비 지급 등 청소년 리더 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이 궁금하다면?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Species Korea)에서 확인하세요.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중천)은 한국 생물지 발간 연구사업, 국가 생물종 목록사업, 생물자원 표본 DB 구축

등을 통한 과학적 성과물이 축적됨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립 및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http://nibr.go.kr/species>)”을 구축하고, 지난 4월부터 시범 구축한 102종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Species Korea)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 자원에 대한 정보를 단방향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외부의 전문가 및 일반인과 공유하기 위해 웹 2.0 기반의 위키피디아와 유사한 형식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동 사이트에서는 한반도 자생생물에 대한 분류 정보, 형태특징, 생태특징, 원기재문, 문헌, 사진, 그림, 표본정보 등 16개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종 정보 뿐만 아니라 상위 분류군에 대한 특징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향후, 자생생물 동정 서비스 시스템, 유용 생물자원 전통지식 DB, 한국 자생생물 소리은행 DB, 유전정보 DB 등 환경부내 각종 생물자원 DB와 연계하여 자생생물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반도 자생생물 3만여종에 대한 포털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법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하는 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생물자원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양방향 생물자원 정보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업 결과물을 활용하여 식물, 포유류, 조류, 곤충, 어류 등 다양한 분류군에서 4천여종 추가 구축 및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네티즌 인기검색 생물종 및 교과서 수록종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서비스 대상종을 확대하여 '18년까지 한반도 자생생물 3만여종 전 종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영국·독일 녹색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3월 31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주한영국대사관,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 한국대표사무소와 함께 ‘영국 독일 녹색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주혁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 한국 대표사무소 팀장은 “독일은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대체에너지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다”면서 “앞으로 독일 기업들과 기술협력을 통해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톰 맷록(Tom Matlock) 주한영국대사관 투자담당 서기관은 “영국정부는 탄소배출 감축과 대체에너지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장현상(Howard Jang) 스코틀랜드 국제개발청 한국 사무소 대표는 “스코틀랜드는 전체

유럽해안 풍력발전의 25%, 조력발전의 25%, 파력발전의 10%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나라”임을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스코, LG전자, 현대건설, SK해운 등 관심업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사 소식

프로미넌트(ProMinent)사 용인시 기흥구에 새로운 생산 사이트 설립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역량과 각 산업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고객에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미넌트 그룹이 지난 3월 12일 한국에 생산시설을 증설 하였다. 프로미넌트사는 이미 1991년부터 한국에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해왔으며 이제 프로미넌트 본사는 총 400만 유로(한화 약 62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에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개관식에는 프로미넌트 그룹의 창립자이자 하이델베르크 정량기술 이사회

위원장인 Prof, 빅토르 둘가 회장,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 한스-올리히 대사, 프로미넌트코리아 이문재 사장 등 지역 정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증설 면적은 총 2500㎡에 달하며 새로 증설된 시설로는 천연가스 및 석유산업 부문에 정량 조절 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한국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게 되었다.

